

1)

( )

(靜的)  
(全知),

(impassibility), 가

가

가

가

(user

friendly deity)

2008. 7. 1 ; 2008. 8. 16 ; 2008. 8. 23 .

1)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II.	
III.	가
IV.	
V.	
VI.	
VII.	
VIII.	

I.

1990년대 들어와 미국 복음주의 좌파 신학자들이 고전적 유신론에 수정을 가한 열린 유신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대표적 입장을 담은 저서가 『하나님의 개방성(The Openness of God)』(Pinnock, et al. 1998: 67-68)이며 여기에 기고한 학자들은 피녹(Clark Pinnock), 라이스(Richard Rice), 샌더스(John Sanders), 하스커(W. Hasker), 바싱거(D. Basinger) 등이다. 이들은 고전적 유신론이 이교적인 희랍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였다며(Rice, 1985: 7-10), 성경의 하나님으로 되돌아 가야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의 정적(靜的) 신관에 대한 수정으로 나온 과정신학의 신론, 즉 신의 개방을 천명하는 과정신론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올슨(Olson, 1995: 30)은 말하기를 열린 유신론이야말로 현대에 와서 신학의 참다운 패러다임의 변이(paradigm shift)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열린 유신론이 해석하는 고전적 유신론과 과정신론의 신관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성경적) 유신론의 관점에서 고전적 유신론, 열린 유신론, 과정신학의 신관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열린 유신론이

해석하는 고전적 유신론을 철학적 유신론으로 보고, 열린 유신론을 과정신학의 신론 같이 현대적 신론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유신론을 성경적 유신론이라고 본다. 기독교 유신론의 신관은 고전적 유신론이나, 열린 유신론이나 과정신학의 신론과 다르다는 것이 필자의 논점이다.

## II.

### 1.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이 하나님을 불변하는(immutable) 존재로 표상하였고 이 표상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희랍적인 신개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존 샌더스(Sanders, et al., 1998: 59-100)는 『하나님의 개방성』(*The Openness of God*)에서 고전적 유신론은 헬라철학과 성경의 가르침의 혼합이며, 이 혼합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불변하는 하나님 상(像)은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고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상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피녹(Pinnock, 1987: 315)은 피력한다: "오늘날 우리들 중 대부분에게 하나님의 이 불변성은 결코 매력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폐쇄적인 실재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 전율을 느끼지 않는다". 피녹은 하나님의 초시간성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온 것으로 보고 하나님은 시간 밖의 하나님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거부한다. 그는 하나님이 초시간적이라면 시간은 실재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Pinnock, 1986: 156). 그래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인정한다.

열린 유신론자들은 다음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인간창조를 후회하는 일, 사무엘상 15장 35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는 일 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대해 후회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

석한다. 그리고 요나서 3장 4절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일, 창세기 18장 23-32절에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로 의인 일곱 사람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짐을 받아낸 일, 출애굽기 32장 12-14절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냄 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대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기를 계획하신 일을 변경하신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성을 무너뜨리는 성경적 증언이라고 본다(Rice, 1994: 27).

## 2.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무감정성(impassibility)을 주장하는 고전적 유신론을 반박한다(Pinnock, 1994: 117-8).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을 감정이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신으로 표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등,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라이스는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제시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편 149편 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신명기 3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등이다(Rice, 1994: 22).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파토스(pathos)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본성과 신실성에 있어서 불변하지만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 변한다고 본다.

## III.

## 가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을 과정적 존재로 보는 과정신학의 신론에 대하여 비판적 수용의 입장을 취한다. 보이드(Gregory Boyd)는 공개적으로 과정신학의 사상을 수용한다. 그리고 "과정세계관의 근본비전은 특히 찰스 호손(Charles Hartshorne)에 의하여 제시된 것처럼 옳다(Boyd, 1992: preface)"고 피력한다. 보이드는 과정사상을 약간 변형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프랑클린(Stephen T. Franklin)은 하이트헤드의 사상에서 "사실에 관한 진실한 주장을 나르는 신-언어(God-language)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심오한 형이상학적 비전(Franklin, 1990: ix)"을 발견한다.

라이스(Rice, 1985: 33)는 자유의지 유신론(free will theism)과 과정사상(process thought)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한다: "하나님 개념은 여기서 시간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단수적인 무시간적 지각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의 계기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시며 구체적인 경험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열린 유신론의 견해는 과정견해(process view)와 공통적이다. 라이스는 이 공통성에 대해 다음같이 피력한다: "열린 유신론은 과정유신론(process theism)과 두 종류의 하나님 분석(the twofold analysis of God) 또는 위에 기술된 다극 유신론(di-polar theism)을 공유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분, 필연적이며 우연적인 분, 영원하며 시간적인 분, 불변하며 변화하는 분으로 양면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각 상응 짝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를 하나님 존재의 적절한 측면으로, 본질적인 신적 성격 또는 구체적인 신적 체험으로 돌린다."

과정신학에 있어서 신(神)존재는 우연적이며, 의존적이며, 시간적이며, 관계적이며, 지속적인 변화 속에 있다(Ericson, 1997: 89). 이러한 과정적인 신관은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있어서 열린 유신론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신 이해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과정신학이 성경의 신 이해보다는

과정철학의 존재개념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과정신학의 신 이해에는 창조개념이나 인격적 신개념이 없다. 따라서 열린 유신론은 한편으로는 신의 개방성 개념에서는 과정신학의 사고를 받아들이지마는, 다른 편으로 신의 인격성 개념 설정에는 성경적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 IV.

##### 1.

열린 유신론자, 피녹(Pinnock, 1987: 313-14)은 과정신학과 고전적 유신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둘 사이의 중간 길임을 천명한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 존재를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점에서는 과정신학에 동의하나, 후자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세계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Pinnock, 1987: 318-20). 과정신학은 하나님을 세계에 내재적인 존재로 보나,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을 세계에 초월적인 존재로 본다. 과정신학은 세계의 항구적인 과정을 주장하면서 무로부터의 창조교리가 없는 데 반해서, 열린 유신론은 무에서 창조라는 성경적 창조교리를 수용한다.

과정신학의 신론은 창조, 종말 등, 초자연적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열린 유신론은 초자연적인 기적, 신의 독립성, 악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 이 점에서 열린 유신론은 과정신학의 신론과 다르다.

## 2.

핀녹(Pinnock, 1994: 7)은 하나님의 개방성을 다음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과 함께 일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변하는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규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개방한다. 사랑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가 실재되도록 하는 일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기를 초청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개방성이란 인간 자유의 결단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변화하는 상황에 자신을 적응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으며 시간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헤아리면서 알지 못하는 미래 사건을 배워나가신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열려 있으며 알지 못하며, 우연적 사건과 마주치면서 미래의 진로를 알아 나가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열려 있으며 변화를 경험한다(Frame, 2001: 28). 이런 점에서 열린 유신론은 신의 존재를 과정으로 보는 과정신학의 신론과 공통점을 갖는다.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이 세계의 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시간적 존재라고 본다. 이 점에서 열린 유신론은 과정신학의 신론과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열린 유신론은 과정신학의 신론이 하나님을 단지 과정으로 보고 신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후자와 구분된다. 신을 인격적인 면에서 보고 그와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점에서 열린 유신론은 성경적 신론, 즉 기독교적 신론에 접근한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가변성과 감수성을 천명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열린 유신론은 기독교 교리에 무관심하나 성경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에 대하여 열려 있는 복음주의 신자들 가운데 어필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 유신론자들이 신자의 구체적인 신앙경험이나 목회 현장과는 동떨어진 철학적 사변에 몰두하는데 반해서, 열린 유신론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싶어 하는 신자들의 지적 필요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다(이경직, 2007: 178).

## V.

### 1. : 가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수정을 가한다. 피녹은 다음같이 피력한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신뢰성에 있어서 불변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도 변화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대응에 있어서 변화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것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스러워 하였다(창세기 6:5).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요나 3:10)(Pinnock, 1998: 117)." 그러므로 열린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르치는 고전적 유신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자의 신앙생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열린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가변성을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이고 인격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역동적인 관계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열려 있는 미래에서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 자신에게 모험이 된다.

열린 유신론자들은 특히 기도생활을 예로 든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미래가 열려 있음과 하나님의 뜻이 변화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들은 미래가 이미 예정되어 결정되어 있다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이 불변하는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기도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 2. (全知) :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전지(全知) 개념에 수정을 가한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는 다 알지만 미래의 일부사건은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Hasker, 1994: 136).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미래결정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 잘 대처함으로써 그의 신실성(faithfulness)을 유지한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자신은 큰 그림만을 그린다. 그래서 피녹(Pinnock, 1994: 123-24)은 하나님의 세부적인 섭리보다도 일반적 섭리를 지지한다. 피녹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 자유의지의 능동적 역할을 허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미래결정 때문에 자신의 큰 계획에 손상을 입는 위험을 감수하는 분이시다. 인간 자유의지의 우연성 결정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차질을 가져오기를 감수하시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다 아시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지식에 근거하여 아신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불확실하다.

## 3.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예지 개념에 수정을 가한다. 하나님의 전지성(全知性)은 과거와 현재에만 해당하며 미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되어 결정되는 사건들을 미리 알지 않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미래의 우연적 사건들을 미리 알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에 대한 제한이요 훼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손상(損傷)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 자유의지를 위한 자기 제한(self-restriction)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에 따른 우연적 사건을 미리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인간 자유의지의 보존이라는 당위가 하나님의 예지에 제한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 4.

: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유신론은 군주적인 하나님 상을 제시한다고 보면서 이를 수정한다. 고전적 유신론의 신은 예정하시고 불변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가까이 가기 어려운 엄격한 재판관으로 표상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을 현대인에게 맞추고 가까이 접근될 수 있는 자, 내재적인 존재로 표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군주적인 모습을 지니는 고전적 하나님 상을 수정하고 인간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과 더불어 협력하는 동반자 하나님의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녹(Pinnock, 1994: 103-4)은 현대문화는 관대하고, 풀어주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모델이 현대문화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 VI.

### 1.

피녹(Pinnock, 1998: 103)은 고전적 유신론의 하나님을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반의 실제적인 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존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불변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며,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는 군주"이다. 여기서 피녹이 언급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 유신론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러한 군주적 하나님을 "형이상학적 원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녹은 열린 유신론의 하나님을 대비시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과 책임과 자비와 민감성과 개방성과 취약성을 가진 아버지 같이 돌보시는 존재다. 그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며, 불변하는 형이상학적 원리라기보다는 세상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우리와 관계하고 인간과 역동적으로 상관은 존재다(Pinnock, 1998: 103)." 여기서 피녹은 고전적 유신론의 하나님을 철학적 유신론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학적 유신론의 신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전능하며, 모든 일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원리다. 여기서 피녹은 이러한 하나님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철학적 하나님(Frame, 2001: 41)"이라고 보고 성경의 하나님과 구분하고 있는 것 같다. 피녹이 철학적 유신론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전적 유신론의 하나님은 기독교 유신론의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다. 기독교 유신론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불변이라는 속성에서는 철학적 유신론의 신과 동일하나 자비로우시고,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공감을 지니신 분이라는 점에서 성경이 증거 하는 하나님이며, 철학적 하나님과는 다르다.

## 2.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한일서 4:8)"를 핵심구절로 삼아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도 사랑의 표현이며, 진지성을 제한하여 일부 미래 사건을 알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한다(Pinnock, 1998: 113-16).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노와 심판에 관하여 말하는 성경구절은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거룩성과 진노와 심판이 단지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고만 해석하여 버린다. 그러함으로써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본성을 이루는 거룩성은 약화되거나 탈락되고 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Brunner, 1972: 160-207)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이라고 규정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다(김영한, 2003: 152).

## 3.

열린 유신론은 고전적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성(omniscience), 주권성(sovereignty), 불변성(immutability)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 피녹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될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알 수 없다(Pinnock, 1998: 121)고 본다. 그래서 피녹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다. 그는 하나님이 미래 지식에 관하여 총망라한 지식(exhaustive knowledge) 보다는 매우 정확한 추측(most accurate guess)을 하신다고 본다.

열린 유신론은 인간의 자유를 자유방임적 자유(libertarian freedom)로 이

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Davis, 2003: 122). 그리하여 인간의 자율성을 절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후회(God repenting)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실수를 언급한다. 기독교 유신론은 하나님의 후회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망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민수기 23:19)"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사무엘상 15:29)" 등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개혁신학의 전통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란 책임적 자유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양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수직적 차원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존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될 수 있다.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양립불가능하나 신학적으로 양립되면서 조화된다.

#### 4.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예정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옮겨져 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정과 예지를 부인하였던 현대판 소시누스주의(socinianism)라고 할 수 있다(Frame, 2001:42). 그리하여 인간의 자력구원을 이루고자 한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이 인간 죄에 대한 무지했다고 본다. 존 샌더스는 죄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몰랐다고 본다. 그는 피력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적 사랑과 상호협력하기를 실패하는 가능성 있는 세계를 창조하

는 위험을 무릅쓰셨다. 하나님은 죄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셨으나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크게 확인하셨다. 그러나 죄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것이 그가 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였다(Sanders, 1998: 243)."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생겨난 불행으로 파악된다.

열린 유신론은 예수가 유다에 대해 무지했다고 본다. 존 샌더스(Sanders, 1998: 99)는 예수가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지를 알 수 없었다고 본다. 그는 피력한다: "예수는 여기서 유다가 그의 카드를 보이고,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메시아 종류에 관하여 유다가 결정을 하기를 추진하신다.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유다가 어느 길을 결정할지 보증이 없기 때문이다. 유다는 자기의 카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의 카드를 보여주기를 강요하는 길을 밟는다. 유다는 그의 육감에 따라서(on his hunch) 당국에 의하여 대결한다는 것은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내기를 한다."

열린 유신론은 십자가 외의 다른 길을 시사한다. 샌더스(Sanders, 1998: 100)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길도 열려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성육신이 세계의 창조부터 계획되었다고 증언하나 십자가는 아니다. 십자가의 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역사 속의 이 순간까지 다른 길도 아마 열려 있었다." 여기서 열린 유신론의 개방성이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 밖의 것까지 말하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십자가 외의 길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역사적 기독교의 길과는 다른 길이다.

## 5.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나, 미래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지식이 아닌, 부분적 지식을 가진다고 본다. 하나님

은 종종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모르며(Pinnock, 1998: 121-24), 때때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Sanders, 1998:132-133).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치 않은 일들을 할 때 "좌절을 나타내기도 한다(Pinnock, 1998: 122)." 그리하여 하나님의 미래 예측은 어긋날 수 있다고 말한다. 미래를 미리 말하는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인간의 확실성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Rice, 1998: 26-35). 미래에 대하여 완전히 알지 못하며,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위협을 감수해야하는 하나님은 역사 종말이 좋게 끝날 것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매우 인간적인 신이 되어 버린다.

## 6.

열린 유신론은 죽음 후 구원의 기회를 언급하고 있다. 피녹(Pinnock, 1992)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죽은 후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열린 유신론은 선택과 유기를 허용하는 전통적 구원론을 수정하고 보편구원론을 수용하고자 한다(Ericson, 1997: 13-16). 열린 유신론이 고전적 유신론에 대하여 헬라적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한 것처럼 열린 유신론은 인본주의적 사랑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오늘날 미국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복음주의권에서는 열린 유신론을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VII.

### 1.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표상하고 주권적 섭리로써 창조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는 창조세계를 돌보시나 피조물의 고난이나 악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고전적 유신론이 하나님을 무감정성(impassibility)을 지닌 자로 표상한 것은 헬라 철학적 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에밀 브루너도 사랑과 감정이 없는 철학적 유신론은 성경적 유신론과 다르다고 말한다(김영한, 2003: 151). 철학적 신 표상은 열린 유신론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적 신 표상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열린 유신론이 고전적 유신론이 주장한 신의 무감정성을 수정한 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사야서(63:9)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에베소서(4:30)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감동성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이 상처 받을 수 있고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존재의 차원으로 끌어 내리는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 2.

(            )

고전적 유신론은 하나님을 영원하고 무시간적 존재로 본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동떨어진 이신론(deism)의 신처럼 역사와 시간에서 퇴각한 존재는 아니다. 그는 초월적 존재이시나 시간에 종속됨 없이 시간에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시간을 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열



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시간적 존재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열린 유신론이 하나님의 존재를 복합적이고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이해하지 않은가 우려된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이 악과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 오용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 유신론이 하나님을 악과 고통의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열린 유신론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자유의지의 오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유의지의 오용을 막지 못한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신이 되고 만다. 악과 고통의 책임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된다, 열린 유신론의 하나님은 물질의 저항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세계를 만들지만 악이 없는 완전히 선한 세계를 만들지 못하는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를 닮고 있다. 그리하여 열린 유신론은 그 자신이 고전적 유신론에게 퍼부었던 비난을 다른 방식으로 되돌려 받는다(이 경직, 2007: 185).

### 3.

열린 유신론의 하나님은 변화하는 존재이다. 열린 유신론은 변화가 반드시 불완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 속의 존재처럼 가멸적인 것에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배우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주권을 포기한다. 그는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기 위하여 스스로 전능을 포기하신다. 그리하여 그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시고, 오류를 범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은 예지

(豫知)를 가지지 않으셔서 미래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열린 유신론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질된 인간신이다. 그러나 기독교 유신론의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면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다(Frame, 2001: 188). 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나,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불변하시는 영원자이시다. 열린 유신론은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을 논증하시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인간 자유의지에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그 전능, 전지와 예지를 포기한 인간적인 신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 4. 가 (invulnerability)

기독교 유신론은 하나님의 고난 받는 그의 백성에 대한 긍휼과 연민, 후회, 슬픔, 진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고난과 수난, 죽음에 관하여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해가능성(vulnerability)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적인 침해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적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공감성과 연대성, 그의 구속의 사랑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침해가능성이란 피조물과 역사에 대한 그의 경륜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의 경륜적인 고통과 슬픔과 열정과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적 삼위일체적 본성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로마서 11:29)." 그는 불변하시고 죽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몰트만과 윙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김영한, 2003: 515f, 518f, 521f.).

그런데 열린 유신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해가능성을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존재자체의 성질로 해석하고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전능을 포기하여 악이 존재하도록 하였고, 미래

에 대한 예정과 예지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래의 일을 결정할 수도 없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신적 본성까지도 인간의 자유 때문에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증언하고, 기독교 유신론이 말하는 불가침해성(invulnerability)을 부정하는 것이다(Frame, 2001: 220).

## 5.

열린 유신론은 신정론의 질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하여 인간 자유의지를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제한함으로써 답변을 하고자 하였다. 고전적 신론에서는 이 악한 세상을 기정사실로 보기 때문에 신정론은 해결 불가능한 수수께끼가 되었다. 열린 유신론은 악한 세상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립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포기하면 신정론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았다. 피녹은 말한다: "악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발생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분노케 한다. 자유의지적 유신론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최상의 해답을 제공한다(Pinnock, 1998: 115)." 그리하여 열린 유신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부각시키고, 하이젠베르크(W. Heisenberg)의 불확실성의 원리와 과정신학의 통찰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존재구조를 개방구조로 설명하고자 하였다(Strimple, 1996: 140-1).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존재에 수정을 가하였을 뿐 여전히 악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존 프레임(Frame, 2001: 161)이 비판하는바 같이, 자유의지의 인정이 악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악의 존재의 인정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이 창조 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는 모험적 시도를 함으로써 창조의 세계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본다. 유대인 대학살 같은 사건

은 하나님이 충분히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본다(Basinger, 1998: 159). 브루스 웨어(Ware, 2000: 201-2)가 비판하는바 같이 열린 신학자들에게 의하면 고통 받고 있는 욕에 대하여 고난의 원인을 사단에게 돌리는 열린 하나님의 무력한 답변밖에 나올 수 없다: "욕아 왜 너는 이 고난에 대하여 나를 비난하느냐? 그 고난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것을 네게 이끌어 들이지 않았다... 불행이도, 사단은 너무나 힘이 세고 나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들을 통제할 수 없다. 바로 그가 이 고난을 네게 가져다 준 자다."

로마서 9장 토기와 토기장이의 비유는 신정론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다. 인간의 선악 행함과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 동일차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둘 사이에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양자는 조화된다. 인간이 100% 자유 의지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100% 인정할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대한 인간의 책임의 이율배반(antinomy)으로 해석한다:

"유효한 은총에 있어서 우리는 순전히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일부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하시고 우리가 전부를 한다. 하나님은 전부를 만들어 내시고 우리는 전부를 행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 즉 우리의 자신의 행위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저자이며 근원이시다; 우리는 적절한 배우들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전적으로 능동적이다."

우리는 유명한 성경구절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립보서2:12-13)"를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한다. 12절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얻는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구

원반은 자들이 성도들의 공동체와 세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실행 해내며 사는가 (live out)"를 지적하고 있다(Fee, 1995: 235). 신자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 안에서 하신 것"을 살아야(live out)한다. 그래서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되풀이해서 서로 서로 만난다(Muller, 1955: 91; Hesselink, 2003: 20)." 하나님의 수직적인 구원의 주권과 인간의 평면적인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된다. 이것은 철학적 조화가 아니라 신학적 조화이다.

신정론의 바른 질문이란 검증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에게는 악하게 보일까?"라는 우리의 한계와 책임을 갚는 질문으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 VIII.

열린 유신론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불변하고 죽지 아니하고 초연한 고전적 유신론의 하나님 상을 비판하고 감정을 느끼고 부모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는 오늘날 시대의 요청에도 맞고 성경이 제시하는 인격적인 신의 모습에 걸맞다고 볼 수 있다. 열린 유신론은 포스트모던 감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다.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열린 유신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에 관하여, 그리고 악과 고난에 관하여 깊은 성찰을 가져왔다.

그러나 열린 유신론은 종교개혁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철저한 무능, 하나님의 전적 구원과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열린 유신론은 현대인에게 만족스러운 사용자 편의(便宜) 하나님(consumer

friendly deity)을 보여 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간보다 약간 나은 분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주관, 전지, 전능, 예지를 부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열린 유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약화시키고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적 차이를 허물고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열린 유신론의 하나님 상은 전통적 기독교가 증언하는 성경적 하나님 상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왜곡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의 파급에 따라 유입되는 열린 유신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성경적 유신론의 변증에 힘써야 할 것이다.<sup>2)</sup>

- 김영한 (2003),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수정증보판, 대한기독교서회.
- 김영한 (2006), "21세기 복음주의 신학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성경과 신학』, 39,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도서출판 영성, 25-51
- 박태수 (2008), "복음주의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본 영린 신학에 대한 비평," 『제 16차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조직신학회 논문 발표회 자료집』, 5월 31일
- 이경직 (2007), "열린 유신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12(3).
- 한상화 (2000), "미국복음주의 신학의 최근 동향과 진보적 복음주의," 『성경과 신학』, 28, 85-121.
- Basinger, David (1998), "Practical Implications,"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s Grove/Carlisle:

---

2) 한국신학계에서는 열린 유신론의 대변자인 핀록(C. Pinnock)의 복음주의 좌파신학에 대한 비판적 논문들이 나왔다(김영한, 2006; 한상화, 2000). 그리고 앞서 언급한바 같이 이경직(2007)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박태수(2008)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열린 유신론에 관한 비판적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비판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InterVarsity Press/Paternoster.
- Boyd, Gregory A. (1992), *Trinity and Process. A Critical Evaluation and Reconstruction of Hortshorne's Di-polar Theism, Toward a Trinitarian Metaphysics*, New York: Peter Lang.
- Bruce Ware (2000), *God's Lesser Glory: The Diminished God of Open Theism*, Wheaton, Ill.: Crossway Books.
- Brunner, E. (1972), *Dogmatik I, Kapitel 14, und 15, 3. Aufla*,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 Davis W. (2003), "Why Open Theism in Flourishing Now?," in John Piper, Justin Taylor and Paul H. Helseth, *Beyond the Bounds*, Wheaton: Crossway Books.
- Ericson, Millard J. (1997), *The Evangelical Left: Encountering Postconservative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 Frame, John M. (2001), *No Other God. A Response to Open Theism*, 홍성국 역 (2005), 『열린신학논쟁』, CLC.
- Franklin, Stephen T. (1990), *Speaking from the Depths: Alfred North Whitehead's Hermeneutical Metaphysics of Propositions, Experience, Symbolism, Language, and Religion*, Grand Rapids: Eerdmans.
- Hasker, W. (1994), "A Philosophical Perspective," in Clark Pinnock, et al.,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Hesselink, John I. (2003. Spring), "Sovereign Grace and Human Freedom," in *Reformation and Revival Journal*, 12.
- Muller Jac. J. (1955), *The Epistle of Paul to the Philippians and to Philemon*, Grand Rapids: Eerdmans.
- Olson, Roger (1995. January), "Has God Been Hostage by Philosophy?" *Christianity Today*, 9.
- Pinnock, Clark (1994), "Systematic Theology," in Clark Pinnock, et al., *The Openness of God. :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_\_\_\_\_ (1992), *A Witness in God's Mercy: The Finality of Jesus Christ in a World of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 \_\_\_\_\_ (1987), "Between Classical and Process Theism," in *Process Theology*,

- ed., Ronald H. Nash, Grand Rapids: Baker.
- \_\_\_\_\_ (1986), "God Limits His Knowledge," in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ed., David Basinger and Randall Basinger,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Pinnock, Clark et al. (1994),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Rice, Richard (1985), *God's Foreknowledge and Man's Free Will*, Minneapolis: Bethany.
- \_\_\_\_\_ (1994), "Support for a New Perspective," in Pinnock, et al., *The Openness of God: A Biblic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Go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Sanders, John (1998), *The God Who Risks: A Theology of Providenc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Strimple, Robert R. (1996), "What Does God Know?" in *The Coming Evangelical Crisis*, ed., John H. Armstrong. Chicago: Moody Press.



## Abstract

# Open Theism, Theism of Process Theology and Classical Theism.

Yung Han Kim(Soongsil University)

Open theism intends to revise the static view of classical God. It revises the immutability, omniscience, foreknowledge, impassibility of God and God's monarchic image. It suggests the mutability, limited knowledge, passibility of God, and his human image, Open theism identifies the God of classical theism with that of philosophy, neglects the holiness of God, restricts the omniscience, and denounces the predestination and prophecy. Open theism is sympathetic to the process theology's view of God, for the latter dynamically understands God. It is critical to the latter, because the God's view of the process theology neither understand God personally nor acknowledge the creation doctrine. Open theism suggests an intermediate way between classical theism and theism of process theology, critically accommodating the doctrine of creation and emphasizing the openness of God. Open theism has brought a deep reflection on human free will, God's foreknowledge, evil and suffering. It, however, has come to deny the sovereignty of God, and human impotence, the necessity of God's total salvation and grace. It perverts Christian God into a

consumer friendly deity.

**Key words:** Free Will, Open Theism, Process Theology's  
View of God, Classical Theism, Reformed  
Christianity